

보도시점 2025. 4. 11.(금) 15:30 배포 2025. 4. 11.(금) 13:00

## 지속가능한 경제, 청년과 함께 설계한다

- 최상목 부총리, 기재부 2030 자문단과 「미래세대와의 대화」 개최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.11.(금), 제3기 기재부 2030 자문단 “넥스트 다이내믹스(Next Dynamics, 이하 3기 자문단)”와 함께하는 “미래세대와의 대화: 청년, 미래를 잡다”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·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며, `24년 2기 자문단까지 활동을 종료하였다. 이번에 출범하는 3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경제·산업, 고용·복지, 대외경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의견 전달 및 정책제언 역할을 담당한다.

### <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5.4.11(금) 14:00 /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
- 주제 :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·사회를 위한 미래 정책 과제
- 참석 : 부총리, 경제구조개혁국장, 청년보좌역 2인

제3기 기재부 2030 자문단원(총 20명 중 19명)

서용석 교수(KAIST), 구자현 박사(한국개발연구원)

김태완 박사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윤상하 박사(대외경제정책연구원)

3기 자문단 발대식을 겸해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자문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,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.

이어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최 부총리는 ‘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’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문단원들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·사회 모습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급변 속 우리 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, 소부장 등 미래먹거리 산업 발전방안, 청년 고용시장 진입 여건 및 구조개혁 필요성, 그밖에 5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 등 미래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였다.

최 부총리는 미래는 과거의 연속선이 아니며,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의 정책적 선택이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며, 모든 정책 설계시 지속가능성과 보다 나은 미래세대의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아울러, 최 부총리는 미래의 방향을 잡는 주역으로서 청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,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은 (044-215-85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혜 (jhae22113@korea.kr)